

어바웃 클래식 그룹

About Classic Group



바이올린 옥자민

- 부산예고 재학중 도독
- 독일뷔르츠부르크국립음대 Vordiplom, Diplom, Konzertdiplom 졸업
- 독일뉘른베르크필하모니 단원역임
- 독일슈투트가르트교향악단 단원역임
- 성남시향 객원 악장
- 어바웃클래식그룹 멤버



비올라 김지은

- 선화예중고 졸업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졸업
- Cleveland institution of music 석사,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세계일보 콩쿠르 대상
- 금호영아티스트 독주회
- 싱가포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역임
-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객원단원역임
- 말레이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객원수석 역임
- 서울챔버오케스트라 객원부수석



플루트 김명경

- 가천대학교 졸업
- 음악저널 콩쿠르, 서울바로크합주단 콩쿠르, 한국음악협회 콩쿠르 입상
- 대전 SBS 화천기행 연속 아티스트
- 어바웃클래식그룹 멤버



메조소프라노 김향은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졸업
- 베를린 국립 예술대학 오페라과 졸업(UdK)
- 국립오페라단, 그랜드오페라단, 조선오페라단, 미리오페라단등과 공연
- Rigoletto, Lohengrin, Die Lustige Witwe, Die Zauberflöte, Così fan tutte, Die fledermaus, La Traviata 등의 작품의 주, 조역
- 오페라전문가수



대표, 콘트라바스 이동혁

- 독일뷔르츠부르크국립음대 Vordiplom, Diplom, Konzertdiplom 졸업
- 독일뉘른베르크필하모닉 주립교향악단 단원역임
- 독일SWR방송교향악단 단원역임
- 원주시립교향악단 수석역임
- 문화체육관광부 신진예술가 선정 및 대표 역임(AYAF)
- 한양대학교, 수원대학교, 전남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예술의전당 청년교향악단 객원교수역임
- 어바웃클래식그룹 대표 및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바이올린 콕예지

- 부산예고 졸업
-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브록클린 음대 학사, 석사 졸업
- 부산금정문화회관과 귀곡독주회
- 금호아트홀 연세 독주회
- 현 뉴월도오케스트라 객원단원
- 대한민국악사박물관 클래식상상을 단원
- 어바웃클래식그룹 멤버



첼로 나인국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졸업
-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상임수석 역임
- 헤럴드 필하모닉 챔버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 독일 베를린 캄머퍼 오케스트라 부수석역임
- 서울첼로오케스트라 악장
- 한국페스티벌앙상블, 에펠레앙상블, 오르페오 앙상블등 솔리스트 활동



호른 김오진

- 서울예고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졸업
-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동아음악콩쿠르 입상
- 천안시립교향악단 부수석역임
- 어바웃클라시앙상블 리더, 유포티앙상블, 비르투오시 브라시앙상블
- 국립강원대, 경희대, 세종대, 숭실대서바토리 객원교수



피아노 손경주

- 성신여대 피아노과 동 대학원 반주과 수석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반주과 졸업
- 새뮤얼캠프, 제주국제관악제, 음연 겨울음악축제, 음악저널 썸머캠프, DMZ 연전 국제음악제, 바로크합주단 여름캠프, 오사카 국제음악콩쿠르 공식반주자 역임
- 전문 Collaborative Pianist로 활동 중

장 마리 르클레어, 바이올린 두대를 위한 소나타 op.3 no.5 • 영화 러브어페어 주제곡
영화 시네마천국 주제곡 •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 3번 3악장 •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 My heart will go on
영화 여인의 향기 주제곡 (por una cabeza) • ombra mai fu • 베사메무초 •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송어> 4악장



영화음악과 고전적유희 on GIST

2018년 12월 19일 (수) 오후 7시 • 광주과학기술원 중앙도서관 1층 소극장



CINEMA MUSIC & CLASSICAL PLAY

어바웃클래식그룹은 2007년 창단된 어바웃콘트라바스 앙상블을 2015년 확장하여, 국내 최초의 유니버시티형식의 클래식전문단체으로서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융성과 클래식음악의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바웃콘트라바스앙상블이 10년간 차곡차곡 쌓아왔던 예술적 가치와 콘텐츠 개발 노하우를 모태로 창단된 어바웃클래식그룹은 예술가들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타 장르 또는 다양한 문화기술과의 접목 등 다양한 협업을 통해 창의적 예술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내 최정상급의 젊은예술가들로 구성된 어바웃콘트라바스앙상블, 어바웃스트링앙상블, 어바웃브라시앙상블, 어바웃보이스앙상블, 어바웃플루트앙상블, 어바웃피지컬씨어터, 어바웃클래시코케스트라 등 7개의 소 단체로 구성하여, 각 단체의 리더가 공연을 책임 진행하는 시스템을 갖춘 단체입니다. 또 자문위원과 리더로 구성된 생크렙코인 어바웃컨텐츠제작소를 운영하여 수준 높은 문화컨텐츠를 그룹 내 산하단체에 제공합니다. 어바웃클래식그룹은 지금까지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공연콘텐츠를 제작하여 세종문화회관, 국립과천과학관, 재능아트센터, 수원문화재단, T1아트센터 광주아시아문화전당, 문화비축기지등 공공 공연장과의 공동기획, 기획공연 등 보다 폭 넓은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흥시립합창단 등과 합연을 통한 공연으로 지속적인 어바웃 매니아 층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바웃클래식그룹은 청년연주자, 청년작곡가 공모사업을 통해 선발된 청년예술가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등 청년 예술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향후 국내 예술계를 이끌어 갈 청년에게 예술다양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최

어바웃 클래식 그룹

About Classic Group

주관

GIST 광주과학기술원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도서관 Library
G.O.L.D.

1 장 마리 르클레어, 바이올린 두대를 위한 소나타 op.3 no.5

바이올린 옥자인, 콕예지

2 영화 러브어페어 주제곡

피아노 솔로 손경주 / 바이올린 옥자인, 콕예지 / 비올라 김지은 / 첼로 나인국

3 영화 시네마천국 주제곡

플루트 김명경 / 바이올린 1 옥자인 / 바이올린 2 콕예지
비올라 김지은 / 첼로 나인국 / 콘트라바스 이동혁

4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 3번 3악장

호른솔로 김오진 / 바이올린 옥자인, 콕예지 / 비올라 김지은 / 첼로 나인국

5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 My heart will go on

바이올린 옥자인, 콕예지 / 비올라 김지은 / 첼로 나인국 / 콘트라바스 이동혁

6 영화 여인의 향기 주제곡 (por una cabeza)

바이올린 옥자인, 콕예지 / 비올라 김지은 / 첼로 나인국 / 피아노 손경주

7 ombra mai fu

메조소프라노 김향은 / 바이올린 옥자인, 콕예지 / 비올라 김지은
첼로 나인국 / 피아노 손경주

8 베사메무초

메조소프라노 김향은 / 피아노 손경주

9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송어> 4악장

바이올린 옥자인 / 비올라 김지은 / 첼로 나인국 / 콘트라바스 이동혁 / 피아노 손경주

영화음악을 소개합니다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장 마리 르클레어, 바이올린 두대를 위한 소나타 op.3 no.5

르클레어는 18세기 바로크와 고전주의의 전환기에 활동했던 바이올린 연주자로 프랑스바이올린 악파의 창시자로 알려졌다. 그의 대표적인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모음곡집 op.3 중 오늘 연주되는 곡은 유일한 단조인 5번곡으로 선율이 아름다워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사랑하는 대표적 레파토리이다.

영화 러브어페어 Love Affair 주제곡 ▶ 작곡가 Ennio Morricone

1932년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3번에 걸쳐 리메이킹된 할리우드의 고전 로맨스 영화로 바람둥이이자 은퇴한 미식축구 스타인 마이크 캄브릴(워렌 비티 분)은 호주로 가던 중 비행기에서 테리 맥케이(아네트 베닝 분)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된다. 둘이 탄 비행기가 엔진이상으로 비상착륙하고, 지나가던 크루즈를 타고 타히티로 향하게 되면서 둘 사이에는 사랑의 감정이 싹트게 된다. 타히티에서 만난 캄브릴의 속모습은 1930년대부터 할리우드를 주름잡던 대표적 명배우 캐서린 헵번이었다. 그녀의 유작이기도한 러브어페어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당시 87세였던 그녀가 피아노를 치고 아네트 베닝이 허밍으로 노래 부르는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시네마천국 Nuovo Cinema Paradiso 주제곡 ▶ 작곡가 Ennio Morricone

영화의 주인공 어린 소년 토토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로, 토토는 동네의 성당에 있는 신부님을 도와 영화의 선정적인 장면을 잘라내는 작업을 한다. 그러던 중 극장에서 일하는 알프레도와 우정을 쌓고 아버지가 안 계시던 토토는 알프레도와 점점 가까워진다. 어느 날 극장에 화재가 일어나 알프레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전소한 극장을 문을 닫게 된 후 새로운 극장이 들어서면서 토토는 일자리를 얻게 되고 친구인 알프레도의 조언으로 로마에 가서 마침내 영화감독으로 성공을 하게 된다. 어느 날 알프레도의 사망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 그가 남긴 필름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필름들은 바로 신부에 의해 검열당했던 장면들로 알프레도가 못보게 했던 장면들이었다. 그 필름을 보면서 어릴적 알프레도와의 추억을 되살리며 토토는 화상에 빠진다.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 3번 3악장

오케스트라의 가장 중요한 금관악기로 사용되고 있는 호른은 모차르트 당시 연주상 어려움이 많은 악기였지만 보헤미아 호른 연주자 안톤 요세프 함펠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연주기술로 호른 연주자들의 기술이 상당 보편화된 상황에서 작곡가의 뛰어난 재능은 악기의 특성을 잘 살린 명곡들을 탄생 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1784-1787년 사이에 빈에서 작곡된 작품으로 친구이자 잘츠부르크 궁정 오케스트라의 호른주자였던 요세프 로이티게프를 위해 쓴 곡이기도 하다.

영화 타이타닉 Titanic 주제곡 (James Roy Horner)

타이타닉 호와 함께 가라 앉아있던 보물들을 발굴하려던 해양과학자들이 보석 달린 목걸이를 달고 있는 여인의 그림을 발견하면서, 이 그림 속의 주인공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나타난 할머니를 타이타닉호 침몰 참사에서 살아남은 목격자로 참여시키는 내용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경제적으로 몰락한 귀족 가문의 딸 로즈는 부모님의 강요로 약혼자와 함께 타이타닉호에 동승한다. 집안을 살려보겠다는 어머니의 강요로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같은 배에 타게 되며, 이에 절망한 로즈는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떠돌이 화가 잭이 발견해 그녀를 설득한다. 자유분방한 잭에 호감을 느낀 로즈는 미국에 도착하면 함께 살기로 약속을 하지만 직관력을 가진 로즈는 불행을 암시한다. 배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기 시작했고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로즈가 직감했지만 선원에게 알려도 선원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거라며 그녀의 말을 무시한다. 하지만 빙하와 충돌하며 배가 침몰하게 되고 구조장비가 부족하여 모두 살지 못한다. 이러한 순간에도 잭은 로즈를 격려하다 숨을 거두고, 그녀는 최선을 다해 구조요청을 한다. 잭과 로즈는 서로를 의지하며 마지막까지 매달리다 바다속으로 떨어지게 되고 잭은 로즈에게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부탁한다.

영화 여인의 향기 Scent of a Woman 주제곡 ▶ 작곡가 Carlos Gardel

영화 주인공 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고향에 가기 위한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으로 퇴역 장교 프랭크를 만나게 된다. 프랭크는 시력을 잃은 중령 출신 장교로 간간하고 괴팍한 성미에 찰리는 당황했지만 여비를 마련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돌봐주기로 한다. 그때부터 찰리의 험난한 아르바이트 생활이 시작된다. 그날 저녁 찰리는 학교에서 곤란한 요청을 받게 된다. 또한 프랭크중령은 뉴욕여행을 가기 위해 비밀작전을 펼치게 되고 찰리는 결국 프랭크와 함께 뉴욕에 오게 된다. 프랭크는 어린 찰리에게 고급진 호텔, 비싼 레스토랑, 리무진 등등 좋고 화려한 경험을 시켜준다. 눈이 보이지 않는 프랭크는 향기만으로 여자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식당에서 도나라는 여인을 처음 만나게 된다.

ombra mai fu

헨델의 라르고로 알려져 있는 <ombra mai fu - 그리운 나무 그늘>는 오페라 [세르세]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아리아다. 라르고이기에 폭 넓고 느릿하게, 또한 표정을 극히 풍부하게 연주해야 하는 이곡은 카스트라토를 염두에 두고 작곡되었으나, 현 시대에서는 카운터테너 또는 여성성악가가 배역을 맡아 노래한다.

베사메무초

베사메무초는 멕시코 여성 작곡가 콘수엘라 벨라스케스가 스물 네살때 길을 지나가다 뜨겁게 키스를 하고 있는 연인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만든 곡으로 번역곡으로 프랑스의 유명 샹송가수 Dalida가 부른 프랑스어 버전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아노 5중주 송어 die Forelle 4악장 ▶ 작곡가 슈베르트

이 곡은 슈베르트가 슈타이어라는 곳에 머물 때 바움가르트너로부터 아마추어들이 연주하면 즐길 수 있는 쉬운 작품을 작곡해 달라는 청탁에 의해 작곡되었다. 피아노 5중주로는 작은 시냇물 확살처럼 달리는 송어의 아름다움과 그 송어를 무정하게 낚아 올리는 낚시꾼에 관한 노래로 이 곡 중 가곡 송어의 선율을 사용한 악장을 더한데서 "송어"라는 별칭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 곡은 5악장으로 되어 있으며 악기편성은 피아노를 주제로 하여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바스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제2바이올린을 편성하고 콘트라바스를 제외하는데 이렇게 악기가 편성이 된 것은 의뢰자 바움가르트너의 요청 때문이라 알려져 있다.